



CONTENT

PART

1. 시작	06	시민상상포럼을 시작합니다.
	07	첫 시민상상포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1	정책발굴단은 이렇게 활동해요.

PART

2. 만남	14	시민상상포럼, 힘차게 출발!
	18	기대만발, 이래서 평생교육 정책발굴단에 지원했어요~

PART

3. 배움	26	디지털 리터러시,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
	33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평생교육

PART

4. 채움	42	그것이 알고 싶다! 평생교육 정책발굴단은 이런 점이 궁금했어요~
-------	----	-------------------------------------

PART

5. 21인의 생각	62	평생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다!
	67	21인의 생각들: 아이디어 발산과 수렴
	76	2차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런 점이 좋았어요~

PART

6. 21인의 제안	84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을 제안하다!
	88	디지털 대전환 시대: 문해력 향상을 위한 21인의 정책 제안
	92	평생교육 정책발굴단 활동을 마무리하며

부 록

97	2022 시민상상포럼, 디지털 대전환 시대: 문해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제안 권고문
----	--

- 시민상상포럼을 시작합니다.
- 첫 시민상상포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정책발굴단은 이렇게 활동해요.

시민상상포럼을 시작합니다.

추진배경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평생교육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
- 시민주도적인 시민상상포럼 운영으로 다양한 채널에서의 의제 발굴을 시도 하고 대전시 평생교육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함

추진목적

- 시민이 직접 참여한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및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참여 평생교육 문화를 조성
- 시민이 상상하는 평생교육의 미래를 의제로 만들고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 평생교육 이슈를 확산

공론화 절차



- 시민상상포럼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해결 방안과 우선순위 등 가이드라인 도출
- 다수 의견을 취합하는 원탁토론 방식이 아닌, 대표성과 숙의성(학습과 토의)을 기반으로 정책형성형 공론화 구현

첫 시민상상포럼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제 및 배경

- ▶ 포럼 주제
- 디지털 대전환 시대: 문해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제언
- ▶ 주제 배경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뉴노멀이라 불리는 새로운 미래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자 ‘디지털’에 대한 국민적 예민도가 높아졌음. 종전에는 생활에 편리성을 더하는 보조적 도구였던 디지털이 생활의 중심이 돼버렸기 때문임*
 -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기에 필요한 전략으로, 디지털을 잘 쓰고, 잘 다루는 것을 넘어 산재해 있는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선택하고, 편집과 가공을 통해 새로운 지식으로 창출하는 통합적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주목받는 배경임*
 - 코로나19의 장기화,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들은 개인의 능력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정책은 무엇일까*

*) 김현정 객원기자(2020). 디지털 리터러시가 국가 경쟁력이다. The Science Times. www.sciencetimes.co.kr/news

진행방법



평생교육
정책발굴단 구성

- **모집대상**
 - 평생교육에 관심있는 대전 시민 누구나 / 20명 내외
- **모집요건**
 - 정책발굴단 워크숍 활동에 참석이 가능한 분(3주 예정)
 - 평생교육을 주제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정책제안을 해 주실 분
- **모집일정**
 - 2022. 10. 20.(목) ~ 11. 13.(일) / 온라인 접수
- **정책발굴단의 활동**
 - 기간: 2022. 11. 22.(화) ~ 12. 6.(화) / 매주 화요일
 - 내용: 사전학습, 숙의토론 참여 및 정책제안

일정 및 내용

- **1차 시민상상포럼**
 - 일시: 2022. 11. 22.(화) 14:00~17:00
 - 내용: 기대나누기, 사전학습(주제발표, 질의·응답)
- **2차 시민상상포럼**
 - 일시: 2022. 11. 29.(화) 14:00~17:00
 - 내용: 숙의토론(문제점, 개선사항, 정책 아이디어 도출 및 공유 등)
- **3차 시민상상포럼**
 - 일시: 2022. 12. 06.(화) 14:00~17:00
 - 내용: 정책제안 수정 및 의사결정 동의과정, 소감나누기 등

세부일정

구분	시간		내용
1차 시민상상공럼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14:00~14:40	40'	개회식, 인사말, 진흥원 및 사업 소개, 숙의토론 소개, 기대나누기, 주제발표 소개
	14:40~15:20	40'	주제발표
	15:20~16:45	85'	질문만들기, 휴식, 질의·응답(1분 질문, 2분 답변)
	16:45~17:00	15'	다음 일정 안내 및 폐회 / 사진촬영
2차 시민상상공럼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14:00~14:15	15'	개회 및 1차 내용 정리
	14:15~15:45	90'	1차 분임별 숙의토론, 전체 공유, 휴식
	15:45~16:55	70'	2차 분임별 숙의토론 및 정책제안 전체 공유, 소감나누기
	16:55~17:00	5'	다음 일정 안내 및 폐회
3차 시민상상공럼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14:00~14:15	15'	개회 및 2차 내용 정리
	14:15~15:15	60'	정책제안 수정 및 의사결정 동의과정, 소감나누기, 휴식
	15:15~16:55	100'	향기테라피 롤-온 만들기
	16:55~17:00	5'	폐회

정책발굴단은 이렇게 활동해요.

역할 및 규칙

정책발굴단의 역할

- [사전학습] 시민상상공럼 자료를 숙지하고 전문가 주제발표 및 의견을 청취,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습
- [참여와 학습] 정책발굴단은 숙의토론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다양하고 심화된 의견을 도출, 종합
- [결과정리] 정책발굴단의 숙의토론에서 공유된 의견을 정리·종합하여 정책제안 및 결과를 제출

참여규칙

-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정책발굴단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숙의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겠습니다.
- 제공되는 자료와 지식을 학습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 문해력 향상을 위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발전 방향과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숙의 과정의 마침까지 나와 동료, 정책발굴단에게 어떠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시민^{*}상^{*}상^{*}포럼^{*}

만남

2
PART

- 시민상상포럼, 힘차게 출발!
- 기대만발, 이래서 평생교육 정책발굴단에 지원했어요~

시민상상포럼, 힘차게 출발!



길고 긴 가뭄에 단비 내리던 날, 대전평생교육진흥원 1층 컨퍼런스홀이 활짝 열렸다. 행사 시작 30여 분 전부터 하나둘 모여든 평생교육 정책발굴단들은 입구에서 명찰을 받아두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단상 아래에는 ‘시민상상포럼’이라는 여섯 개의 글자 카드가, 단상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기둥에는 ‘숙의’와 ‘경청’이라는 현수막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시민상상포럼에서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그대로 전해졌다.

시민상상포럼에는 모두 21인의 시민이 자원했다.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일곱 명씩 세 개의 분임으로 나누어졌다. 미리 마련된 세 그룹의 테이블 중앙에는 ‘1분임’, ‘2분임’, ‘3분임’이라는 풋말이, 개개인의 자리에는 시민상상포럼 자료집, 굵기가 다른 펜 2자루, 색색이 포스트잇이 가지런히 놓였다.



“우리 집사람이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배달강사예요. 그래서 진흥원의 새로운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줍니다. 이번에도 평생교육 정책발굴단 모집 공고를 보자마자 저에게 권유했는데 검색해 보니 괜찮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이 기회에 디지털 문해력에 대해 공부도 하고 평생교육 정책 마련에 의견도 개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이삼용 단원은 자료집을 천천히 넘기며 공책에 메모했다. 알고 보니 첫 번째 모임 전에 메일로 자료집 파일을 미리 받아 예습했다며 시민상상포럼에 가는 기대와 애정을 드러냈다.

“시민상상포럼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발굴된 정책의제가 대전시의 평생교육 사업과 연계되어 실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문해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제안입니다. 3년에 걸친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유튜브, 키오스크, SNS 등이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룰 뿐만 아니라 쏟아지는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정책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정책발굴단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오후 2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담당자의 인사말로 시민상상포럼 첫 모임이 시작했다.



“디지털 격차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평생교육 역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평생교육법이 있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또 대전 시민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정책발굴단 여러분 역시 평생교육 당사자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대전·충청지부 김원숙 소장이 진행자로 나섰다. 숙의라는 것은 한 가지 의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하는 것을, 공론화라는 것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라는 것을 짚어주며 시민상상포럼의 의의와 진행방식에 대해 소개했다.

“저희 아이들은 디지털 시대에 나고 자라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립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젊은 세대와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정보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어요.”

3주간 동고동락할 정책발굴단의 자기소개 시간이 이어졌다. 종례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고등학생부터 대전시민대학 수강생, 은퇴자, 배달강사, 대학 평생교육원과 민간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평생교육담당 공무원, 마을활동가, 평생교육사, 장애인단체 관계자, 주부 등 다양한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시민상상포럼에 참여하게 된 동기 그리고 시민상상포럼에 대한 기대를 나누었다. 📺

기대만발, 이래서 평생교육 정책발굴단에 지원했어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어요”

- 박준우 단원



평생교육 정책발굴단에는 21명의 대전 시민이 참여했다. 남대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준우 단원은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으로, 학교 밖에서는 마을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 소재 62개 고등학교 재학생 중 유일한 참가자이자 최연소 단원인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1 평생교육 정책발굴단에 지원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12년간의 학창시절을 마무리하고 더 나은,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2023년에는 법학과 새내기가 되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평생교육은 떼놓을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배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만큼 평생교육 정책 발굴단에서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들을 함께 만들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Q2 시민상상포럼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세대별 맞춤형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평생교육 관련 뉴스를 보면 어르신들께 치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세대 중에서도 디지털 사회에 소외되고 정보 격차를 겪는 이들이 있거든요. 소수이지만 이런 소외된 젊은 세대도 함께 이끌고 가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닐까 싶어서 평생교육에 더 관심 갖게 됐어요. 시민상상포럼에서 청소년·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Q3 실제로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젊은 세대가 있나요?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에서는 노인층만 소외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이나 청년 중에서도 아직 스마트폰 활용도가 낮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 역시 사회의 일원인 만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소통부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평생교육 정책발굴단에 지원했습니다.

“평생교육 정책발굴단으로
활동한다는 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죠.”

- 이삼용 단원

공무원으로 퇴직했는데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기회에 디지털 문해력이 어떤 건지 공부도 하고 필요하면 의견 개진도 하고, 이게 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닐까요?



“장애인은 디지털 문해력을 어떻게 갖춰야
할까요?”

- 이창복 단원



저는 장애인단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디지털 문해력을 어떻게 갖춰야 할지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또 정부가 디지털 인력 100만 명을 양성한다는 데 대전에서는 어떤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상상포럼을 통해 제안된 평생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디지털 소외세대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 권채숙 단원

얼마 전 대전광역시 밴드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고 ‘시민상상포럼’이라는 제목이 재밌어서 신청했어요. 또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가 확 와 닿았습니다. 4년 전 서울역 앞 패스트푸드 매장에서의 경험이 떠올랐거든요.

키오스크로 메뉴를 고르는데 제 뒤로 길어지는 줄에 진땀 났습니다. 굴욕감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햄버거 하나를 주문하는 순간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이제 밥도 못 사 먹는 거야?’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투덜투덜했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절실했습니다.

우리 50대 이후 디지털 소외세대의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디지털 소외세대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상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 황수정 단원



사람들마다 각자 보고 싶은 걸 보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 정책발굴단’이라는 문구가 인상 깊었는데 이 자리에 와서야 ‘디지털 문해력 향상’이라는 주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민간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중단 없이 지역 어르신들과 평생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척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죠. 그래서 시민상상포럼 공고가 떴을 때 ‘이런 자리가 있다니, 당연히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많이 배우고 해결책을 얻었으면 합니다.



“배우는 게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것이죠.”

- 오형석 단원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38년 정도 근무했어요.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지 25년이 됐지만 여전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대전시민대학에서 몇몇 강좌를 수강했고 방송통신대학 에도 입학했습니다. 또 은퇴자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기업 대상 기술 상담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 드론을 배웠는데 촬영하고 편집하고 SNS에 업로드하면서 드론을 배우고 싶은 이가 있다면 가르쳐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배우는 게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것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은퇴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다 보니 ‘내 인생 사는 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움을 이어갈 때마다 평생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합니다. 평생교육에 기대하는 바가 많은 만큼 저도 배우면서 무언가 기여하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도 쉽고 편하게 디지털 생활을 누리셨으면 해요.”

- 안선영 단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배달강사입니다. 배달강좌 특성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많아요. 저 역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를 마주하면 무서운데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커서 아예 접근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실 때가 많아요. 여기서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관련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수립하다보면 그분들도 좀 더 편하게 디지털 생활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 조영화 단원

현재는 마을계획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특기를 살려 대전시민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강의를 하지 않게 되었지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평생교육 시대인 만큼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듣고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만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참여했습니다.”

- 유의진 단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무실에 있다 보니 현장감을 되찾고 업무에 도움 받으려고 왔습니다. 저희 대학은 대전과 계룡에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대학처럼 예전에는 요일별로 다양한 강좌를 진행했지만 이제는 사업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어요. 시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이고 또 저렴하게 강좌를 제공하다 보니 저희는 개설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또 사설교육원과 문화센터 등으로 평생교육 시장이 개방되어 더 이상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를 마련하고 유지하기보다는 여성자치대학처럼 특정 대상을 위한 작은 단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원인 만큼 공공성을 살려 예전처럼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달라는 학습자들의 요구가 있지만 반영하기 어려워 안타깝습니다. 3주간 시민상상포럼에 참여하면서 저희만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싶어요.”

- 박희정 단원

평생교육에 관심이 있고 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자치구에서 평생교육사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직장에서 인정하는 교육 연수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고 3주간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한 2년 정도, 코로나 대유행으로 대면 활동이 제한되어 거의 운영하지 못했어요. 디지털 기반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요. 평생교육 학습자 대부분이 높은 연령대의 성인이다 보니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념이나 접근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평생교육이 멈춰있는 상태였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제 다시 평생교육이 시작됐는데요. 학습자들은 디지털로 전환됐을 때 학습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과 스마트폰 교육 등에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교강사와 자원이 부족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직하고 제공하려는데 저 역시 대략만 알고 있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평생교육 정책수립 과정이 기대됩니다.”

- 김정래 단원

은퇴 이후 남은 인생을 취미 생활로 보내고 있어요. 대전시민대학에서 여러 학기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저 역시 디지털 문해력에 대해 궁금하고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평생교육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인 만큼 세 번의 모임 동안 얻는 것도 많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디지털 리터러시,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
-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평생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길혜지 교수의 주제발표를 인터뷰 형식으로 재가공하였습니다.



이날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배경지식을 학습하는 날이었다. 문해력은 무엇인지 또 디지털 리터러시는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길혜지 교수가 나섰다.

Q1 시민상상포럼에 나오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길혜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여러 연구에 참여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연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 실제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만나 볼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시민들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야기 해 보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욱 기대됩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는 개념들이 시민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살아 숨 쉬는 개념으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Q2 오늘 포럼의 주제가 다뤄진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사회'라는 키워드와 관련해서 원격학습, 원격소비, 원격근무, 원격의료가 등장할 만큼 많은 부분이 언택트로 바뀌었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아까 한 선생님께서 키오스크(kiosk,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 단말기)에 관한 일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은 분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응하려고 애쓰셨고, 그 가운데 언택트 사회가 자연스럽게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에서는 '디지털 약자가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사회적 약자 혹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문해력이 낮은 분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읽고, 쓰고, 셈하기의 문해력을 어느 정도 갖추신 분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약자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도록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포용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평생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Q3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를 이해하기에 앞서 '문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문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리터러시를 '다양한 맥락에서 인쇄되거나 쓰여진 것을 활용하여 인식, 이해, 해석, 창조, 의사소통, 계산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제2조 3항에 담겨져 있는 문해 개념도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기본으로 합니다. 즉, 읽고, 쓰고, 셈하기 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조금 더 나아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 생활능력을 문해의 개념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개념에 비추어서 문해를 조금 더 확장해 생각해 본다면 코로나19 이후 지식 정보 사회로의 진입이 가져온 다양한 맥락 속에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 생활 능력은 읽고, 쓰고, 셈하기 이상의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4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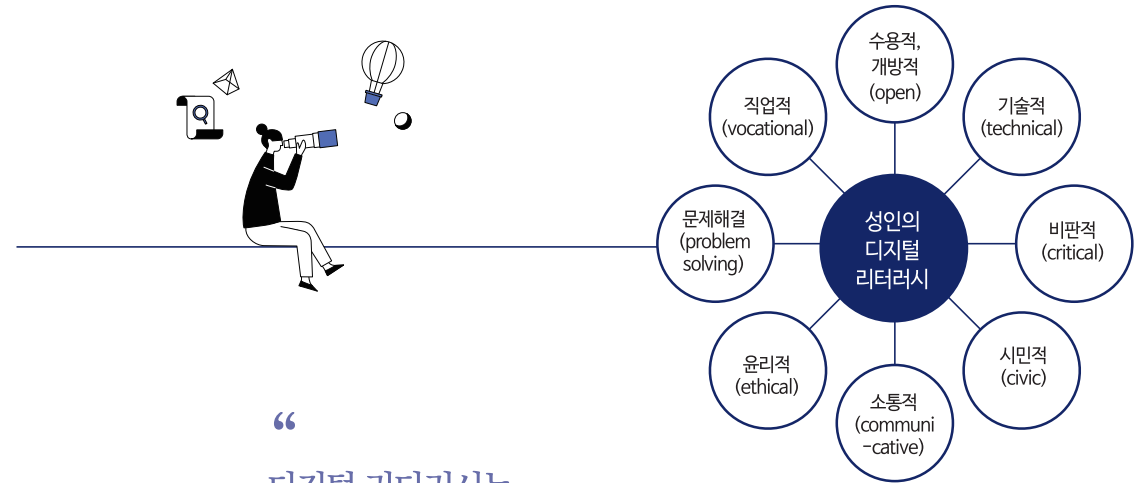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생활양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면, 개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학자마다 다양하고요. 또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져 왔고,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참여한 연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얻은 개념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디지털배움터(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공간) 사업에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고민했던 개념입니다.

Q5 그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첫 번째 개념부터 말씀해 주세요.

먼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과 같이 고민해서 만든 개념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능력’으로, 정보 문해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은 굉장히 확장적입니다. 여기서 ‘확장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이 단순히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중심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기능을 재빠르게 따라가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은 바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능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은 **여덟 가지 구성요소**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 구성요소로는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제작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가 있고요. 새로운 변화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도전하는 수용적·개방적 요소,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신뢰성을 평가하여 가장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는 비판적 요소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세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세상에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고 참여하는 시민적 요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까 단원 중 한 분께서 N포털의 밴드를 언급하셨는데요. 소통적 요소는 이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김혜지, 남창우, 박지숙(2021). 성인 디지털 리터러시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생활양식입니다.
”

그 외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성요소로 윤리적 요소를 꼽을 수 있는데요. 디지털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콘텐츠에 대해 보안의식을 갖는 것, 사이버 위험에 대해 알고 대처하는 것 등의 역량을 갖출 때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디지털 웰빙’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사용하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요소와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직업적 요소도 포함하는데요. 결국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춘다는 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와 기술을 활용하는 것 이상으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출처: 길해지 외(2020).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역량별·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Q6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두 번째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세상에서 어떤 매체를 읽고, 쓰고, 일상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인 리터러시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일곱 가지 생활양식으로도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배움터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진행된 기초·생활·심화 교육에 65만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사업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일곱 가지 생활양식**을 구성했습니다. 이 생활양식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매우 유사하게 새로운 환경에 친숙해지는 것, 디지털 정보를 습득하는 것,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하는 것, 디지털 기기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정서적 웰빙을 유지하는 것,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경제활동·행정처리·여가 및 학습활동·건강관리 등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디지털 환경에서 일하고 새로운 것을 제작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히 읽고, 쓰고, 셈하기를 넘어서는 총체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적 요소들이 이렇게 많다고 말씀드리면 ‘이걸 어떻게 다 갖추느냐?’, ‘평생교육에서 이 모든 걸 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냐?’, ‘디지털 기기와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련된 능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생교육 분야에서 이를 길러내려는 노력은 결코 녹록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지털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삶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혹은 디지털배움터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을 분석해 보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기능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데요. 그 이상의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Q7 ‘디지털 리터러시,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라는 주제가 담고 있는 ‘역량’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의미하는 걸까요?

‘리터러시’와 ‘역량’이 같지는 않지만 리터러시 안에는 이미 역량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역량이라는 것은 사실 평생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서도 ‘역량 중심 교육’이라 하여 많이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역량 중심 교육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량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입니다. 앞서 리터러시를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면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은 역량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학습 및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벨렘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2015 성인학습 및 교육에 관한 권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실현하면서 삶을 자기 뜻대로 꾸리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 수 있는 것’, 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인학습 및 교육의 목적이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크게 세 가지, 문해 및 기초 역량, 계속교육 및 전문성 개발 역량, 교양·대중·지역사회 교육(능동적인 시민 역량) 등으로 구분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은 이 세 가지 역량 중 문해 및 기초 역량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즉 성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삶을 자기 뜻대로 꾸리기 위해서는 읽고, 쓰고, 셈하기의 기초문해를 넘어서서, 이 또한 포함하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 리터러시도 갖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평생학습이 형평성 있게 많은 주체를 포용하면서 추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차별이나 소외감 없이 디지털 세상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계속교육과 전문성 개발 그리고 시공이 융합된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림대 이지혜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문해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보폭에 맞추어 걸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지금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문해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에서 디지털 시민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갖추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벨렘 행동강령(Belem Framework for Action)

-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
- 성인학습과 교육은 현대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성인학습과 교육을 파악할 필요성 강조

※ 참고: 조금주(2011). 평생교육의 이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평생교육

‘삶과삶 모두의 평생학습’ 전하영 대표의 주제발표를 인터뷰 형식으로 재가공하였습니다.



길혜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하기 위해 평생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삶과삶 모두의 평생학습’ 전하영 대표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평생교육>이라는 주제로 평생교육 현장의 전문가답게 평생교육 환경의 변화와 상황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21인의 정책발굴단은 두 전문가의 강연에 귀 기울이며 새로 알게 된 점, 궁금한 점, 같이 생각하고 싶은 점 등을 고민하고 나눴다.

Q1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평생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전하영입니다. 오늘의 포럼이 단순히 포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여기 모인 시민들께서 상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하고, 진흥원에서 그것을 정책과 사업으로 만든다고 하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장에서 평생교육을 계속 실천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고민, 현장에서 느껴왔던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담아왔는데요. 제 생각에 대한 근거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몇 가지 고민을 지금부터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Q2 평생교육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왔나요?

평생교육이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비대면 사회에 적응 혹은 주도해 왔느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 **평생교육의 이슈나 지역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웨비나(webinar), 혹은 웹포럼(webforum)이라고 표현했죠. 웨비나나 웹포럼이 지역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를 전국적인 공론장으로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평생교육 현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모두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웨비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전국의 관계자들이 모두 다 참여하면서 같이 고민을 나누었고, 이것은 평생교육 공론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같은 주제들이 이야기되었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대면 회의에서 논의됐던 주제들이 비대면 화상회의에서도 자연스럽게 다뤄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갔다는 측면에서 웨비나나 웹포럼은 평생교육에서 방향성을 잘 잡았던 거 같아요.

둘째, **온라인 평생교육 강사와 디지털 활동가 양성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상에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지털 역량을 갖춘 강사님들이 필요했죠. 강사 교육의 초기에는 디지털 기기나 앱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후에는 ‘디지털 세상에서의 평생교육은 대면 환경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평생교육을 단순히 온라인상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교육 영역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활동가, 디지털 퍼실리테이터, 러닝 피디 등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며 온라인 교육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등장했고 이들을 양성하는 과정도 상당히 많이 열렸습니다.

셋째, **스마트 e-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도 스마트강의실과 e-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제는 전문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제작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어 온라인에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처럼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해 가는 평생교육의 변화상을 소개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면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대면과 대면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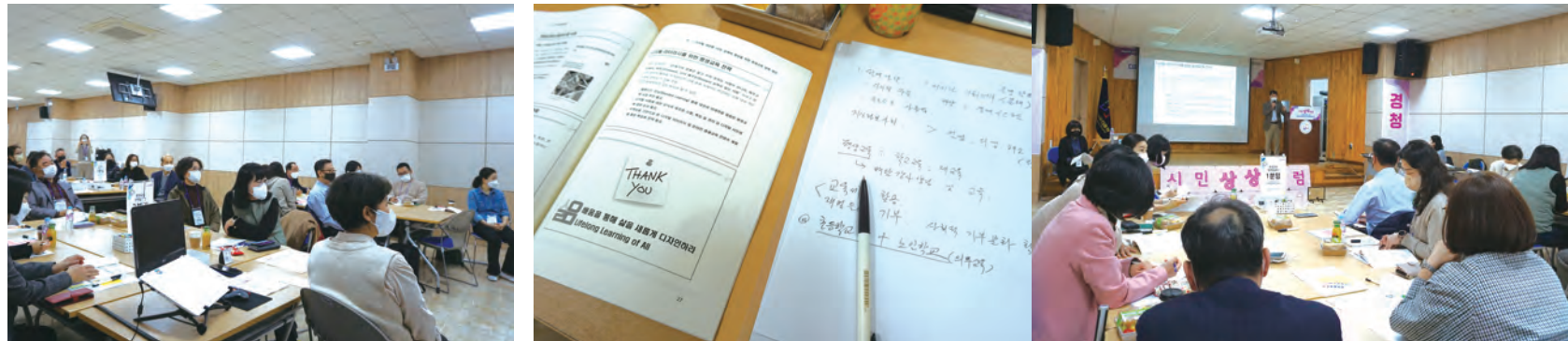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고 대면 사회가 다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온라인 혹은 디지털 평생학습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문제를 전국적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커다란 강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발달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Q3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떠한 고민이 더 필요할까요?

새로운 고민도 상당히 많이 생겼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이 주제와 연결돼 있는 디지털 격차 문제입니다. 앞서 길혜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에서 소외된 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로 인해서 겪는 격차는 훨씬 더 커져간다는 거죠. 문제는 것처럼 소외되는 계층이 훨씬 더 다양해진다는 점, 그래서 미래사회에서는 누구나 소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오늘 같은 대면 강의에서 제가 만든 자료 중 외부로 나가는 것은 교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경우는 접속한 모든 사람에게 송출되기 때문에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 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인 규범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논의되는데요.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제도적인 장치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에서도 그런 부분을 간헐적으로 다루긴 했지만,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평생교육은 갑자기 문을 닫았지만 정말 빠르게 적응을 해왔고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치밀하고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초등학생 1인당
년 1천만원



문해학습자 1인당
년 6만 7천 원 (0.67%)

※ 출처: 문종석 (2022), 코로나19로 확인된 문해교육붕괴 그리고 회복.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제48차 연차대회 자료집.

Q4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평생교육이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면 디지털 비문해자들을 더욱더 양산하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만평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내가 새로운 문자를 발명했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사람이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문맹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걸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디지털 문제도 마찬가지로요.

끊임없이 디지털화되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문해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평생교육이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큰 숙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핵심인데요. 디지털 리터러시와 연결해서 평생교육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디지털 정보나 기기 활용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아직 스마트폰을 쓰지 않거나 PC조차 없는 분이 많으신데 이렇게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교육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첫 번째 숙제라고 봅니다. 결국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 1항의 국민학습권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디지털 격차를 완전히 극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활용 역량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배제되어있는 분은 얼마나 계시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지난 10월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연차대회가 열렸습니다. 자료집 중에서 **비문해에 관련한 내용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교육에서 초등학생은 1인당 연간 1천만 원 정도의 국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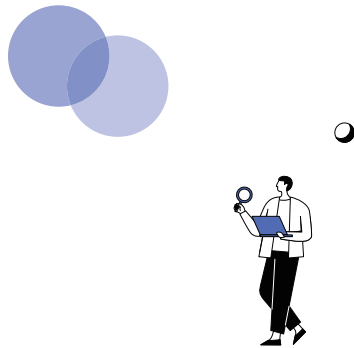
그런데 문해학습자들은 1인당 연간 6만 7천 원의 학습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격차는 평생교육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과제이기도 하지만 배움에서 소외되어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대한 지원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접근이 그들에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디지털 정보 분석 역량입니다. 기사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로봇이 뿔났다... 체스 경기 도중 어린이가 손가락 부러뜨려’라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기사를 보면

“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것들을
비대면 사회가 도래한 이후에
더욱더 외면하지 않았을까?

”



‘드디어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건 로봇이 자율적으로 인간을 해친 사건이 아닙니다. 체스를 두는 과정에서 로봇의 순서가 되었을 때 인간은 체스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걸 지키지 않고 체스를 두고 나서 빠르게 다시 움직였어요. 로봇은 자기가 움직일 차례여서 팔을 움직인 건데 그 상황에서 어린아이의 손가락이 부러진 거죠.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로봇이 공격한 게 아닌데 기사 제목만 보면 ‘로봇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보를 우리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목적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고민이 평생교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고,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합의, 새로운 규칙, 새로운 관점까지 평생교육에서 지속해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6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평생교육 전략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한 평생교육 전략’이 있습니다.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비판적 사고·문제해결·의사결정, 창의성과 혁신, 디지털 시민성, 의사소통 및 협업 등 인간의 행위와 연결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로 다시 귀결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런 새로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더 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평생교육 전략을 세 가지 정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대면과 비대면을 융합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면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비대면이 갖고 있는 강점을 결합한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디지털 사회에 대해 새롭게 인식 전환을 하고 소통·책임·권리 등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은 지역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대전의 특성을 담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최근 책 한 권이 제게 큰 울림을 줬는데요. 제목이 《대면 비대면 외면》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대면의 반대말이 비대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면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사회학자이신 김찬호 교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것들을 비대면 사회가 도래한 이후에 더욱 더 외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 짧은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온·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학습방법, 혼합형 학습